

함께 걷는 여정의 '시노드'(Synod)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이해하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진주교 서울대교구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 아멘.



목 차

시노드를 위한 기도	
교구장님 말씀	2
1. 소개: 함께 걷는 여정(시노드)	4
2. 가톨릭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역사	6
3.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주제	8
4.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고와 설명	10
5.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12
6.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전체 일정(2021.10. ~ 2023.10.) ...	14
7.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서울대교구의 교구 단계 일정 (2021.10. ~ 2022.06.)	17
8.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특징과 목표 그리고 마음가짐	19
9.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공식 「편람」(2.4 함정 피하기)에서 제시하는 시노드 중에 피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	21

교구장님 말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의 준비과정인 교구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교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노드 자문 모임’(소그룹 모임)과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교구 문서 종합)의 목표는 시노드 교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노드 자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노드 자문 모임은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시노드 교회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시노드를 통해 시노드를 익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시노드 교회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경청입니다. 시노드 과정 안에서 하느님 백성은 서로 경청할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인 평신도, 수도자와 성직자 모두가 상호 경청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며 고유한 권한을 지니고 교회의 직무와 생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 곧 세상의 복음화라는 공동의 사명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나눔으로써 시노드 교회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세계주교시노드의 준비단계이기에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금 시노드 교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

금 걷고 있는 이 과정은 세계주교시노드의 새로운 방식이며, 우리 서울대교구가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노드보다도 하느님 백성 모두의 참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울대교구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 정순택

1 소개: 함께 걷는 여정(시노드)

- 모든 가톨릭교회는 이번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시노드’(Synod)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로서 전치사 쉰(σύν, ~와 함께)과 명사 호도스(ὁδός, 길)가 합성된 단어로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의미를 되새기면 ‘함께 걷는 여정’(Journey Together)이 바로 ‘교회’이고 그 여정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바로 ‘시노드’인 것입니다.



“시노드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 교회에 바라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세계주교시노드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년 10월 7일).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이 여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단순히 발표와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회의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시노드는 함께 걷는 여정, 함께 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기도하고 함께 식별과 결정의 과정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각 지역 교구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모여 서로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불안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서로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대화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말하는 것은 항상 기도와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경청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여정의 '목표'는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를 가진 사목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함께 있고, 서로 경청하고 배우며,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노드 교회 체험과 실현).

2 가톨릭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역사

- 시노드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의 교회는 성경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 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회의를 통하여 당면 문제들을 경청하고 토론하며 다 같이 식별을 통해 판단과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더 깊은 경청, 토론, 침묵을 통한 기도 끝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을 식별하고 결정했습니다.
- 또한 초세기 교회에서는(c. 30 AD - c. 500 AD)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이다.”(『시편 강해』 149, 예비 문서 11항)라고 말씀하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포함하여 여러 교부들이 ‘시노달리타스’(함께 걷는 여정의 정신과 그 모든 과정 = 시노드 정신과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해 나아가며 주교들이 모여서, 또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의하며 식별을 통해 결정하는 중요한 시노드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 이러한 여정 속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보편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을 앞둔 1965년 9월 15일 자의 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를 통해 현재의 ‘세계주교시노드’(Synod of Bishops)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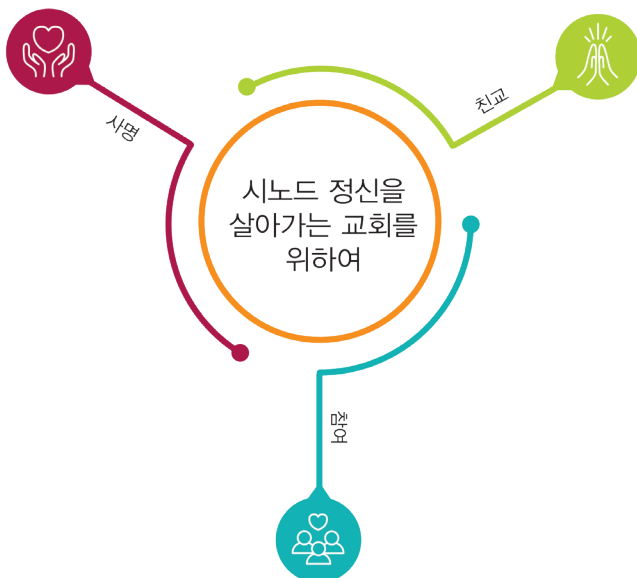
해 교황님께 자문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주교시노드는 제도로서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 영감이 된 정신은 초기 교회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3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이번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친교, 참여, 사명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핵심 기둥들입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교회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합니다.
- 친교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이루는 결합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지칭합니다 (교회 헌장 1항 참조).
- 참여는 모든 믿는 이가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성령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선물(은총)을 통하여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공동체란 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교회 구성원은 없습니다.
- 사명은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느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노드 과정은 심오한 선교적 차원을 지닙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 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여야 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8항).

4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고와 설명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 전체적인 배경을 품고 있는 지혜와 빛으로 충만한 커다랗고 위엄 있는 주황빛의 생명의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들은 성령을 암시합니다.
-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멈추어 있지 않은 하느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노드’(synod)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를 직접 보여 줍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

무가 그들에게 불어넣어 준 그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15명의 실루엣은, 여러 세대와 출신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양한 밝은 색채들로 강조되며, 이는 기쁨의 표징입니다. 같은 바탕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곧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평신도와 수도자, 부모와 부부와 독신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주교와 수녀가 이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길을 열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5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교회의 생활 방식이며 활동 방식인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초기 교회부터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며 식별을 통해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주교시노드 제정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교황님과의 일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시노달리타스’는 이러한 ‘시노드 과정’을 의미하며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 여정의 정신과 그 모든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교회 모임과 주교들의 회의 거행 또는 그저 교회 내부 운영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예비 문서 10항). 오히려 **친교로서의 교회 여정이자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복음 선포를 위해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 결국 ‘시노달리타스’는 의회 투표를 통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다수결로 교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 ‘시노달리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해지기 위

해 함께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노달리타스’는 “교계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적 과정”(예비 문서 14항)이기에 이번 제16차 정기총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노달리타스’의 비전을 어떻게 더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6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전체 일정(2021.10. ~ 2023.10.)

1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2021년 10월 9~10일 로마에서 장엄 개막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마 개막 미사

2 개별 교회와 그 밖의 교회 기구의 단계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서울대교구 개막 미사

- 각 교구별 2021년 10월 17일 개막 미사
- 2022년 8월까지 개별 교회에서 평신도 등 교구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첫 번째 의안집 작성을 위한 시노드 제안을 작성합니다.
- 주교회의로 제출된 각 교구 시노드 제안은 하나의 종합 의안집으로 작성되어 아시아 주교회의로 보내집니다.

3 대륙별 단계

- 2023년 3월까지 위의 의안집의 내용에 대하여 대륙별 대화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식별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문화, 전통 등 특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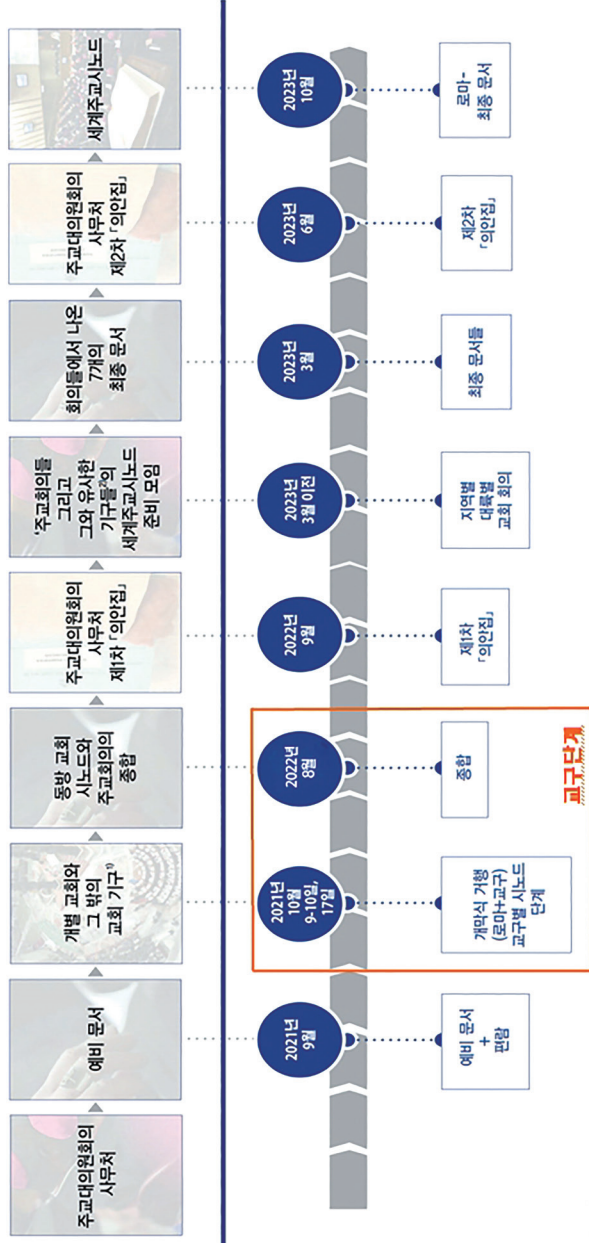
4 보편 교회 단계

- 이후 2023년 10월 로마에 교황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주교들이 모여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전체 일정(2021.10. ~ 2023.10.)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1) 교황성 부서들, 주교성 직제들(세계 및 지역 주교회의(USG-USG)와 그 밖의 연합체들), 신자 단체들, 고등 교육 기관들.
* 2) 아프리카(SECAM), 오세아니아(FBCSO), 아시아(FABC), 중동(OPCO), 유럽(CCEE), 라틴 아메리카(CELAM), 북아메리카(USCCB+CCCB).

7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서울대교구의 교구 단계 일정 (2021.10. ~ 2022.06.)

서울대교구의 교구 단계 시노드 일정(2021.10. ~ 2022.06.)

시기	단계	주요내용
2021년 10월 17일	개막 미사	▪ 교구 단계 개막 미사(명동성당)
2021년 11월	교구 단계 준비	▪ 시노드 준비팀 구성 ▪ 지구 사제회의 시노드 설명 ▪ 홍보 자료 제작 ▪ 홈페이지 구축(http://www.synod.or.kr) ▪ 강론 자료 준비 ▪ 봉사자 교육 기획
2021년 12월	교구 단계 홍보	▪ 강론 자료 제공 ▪ 본당 책임자를 위한 자료 제공 ▪ 교구 내 본당, 수도회, 단체에 홍보
2022년 1월	봉사자 교육	▪ 봉사자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 운영팀 및 소그룹 모임 봉사자
2022년 2월	시노드 모임 진행	▪ 교구 내 시노드 모임 진행 및 제안 제출
2022년 4월	교구 의견 종합	▪ 교구 단계 종합 문서 작성 및 주교회의 제출
2022년 6월	폐막 미사	▪ 교구 단계 폐막 미사(명동성당)

- 현재 서울대교구는 ‘각 개별 교회와 그 밖의 교회 기구들’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교구의 모든 하느님 백성(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목소리를 상호 경청하고 나눔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집이자 삶의 자리라 볼 수 있는 각 본당과 교구 내 수

도회, 단체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임을 통해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 교회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 이후 단계적으로 수립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는 대륙 교회의 식별을 거쳐 본회의인 제16차 정기총회(2023.10.) 때 대의원 주교단의 식별과 투표로 의안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교황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 이렇게 최종 결정은 교황님을 비롯한 사도성과 보편성의 보증인 주교와 그 협력자들의 고유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노드는 모든 이들의 삶의 첫 자리에서부터의 목소리를 담았기에 그 어떤 과정의 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특징과 목표 그리고 마음가짐

- 특별히 이번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8년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를 통해 주제와 상황에 따라 주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소집될 수 있고 이들의 역할은 각각의 경우마다 교황님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신 사항을 온전히 적용한 시노드입니다.
- 대의원 주교들만이 참석자였던 이전 세계주교시노드와 달리 이번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함께 걷는 여정의 교회가 바로 하느님 백성이기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참석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시노드입니다.
- 따라서 이번 시노드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과정으로서, 자료수집을 위한 작업이나 설문 조사, 회의와 토론이 아닙니다. 시노드는 무엇보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시노드 교회 체험)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뜻에 일치할 때까지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것”(시노드 교회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노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당과 교구 내 수도회와 다양한 교회 단체의 시노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되고 의미 있는 환대의 방식으로 서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 시노드 교회를 체험하고 실현해 나아가는 마중물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 둘째, 시노드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청과 대화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걷는 여정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9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공식 「편람」(2.4 함정 피하기)에서 제시하는 시노드 중에 피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

여느 여정과 마찬가지로, 이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함정들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시노드 과정의 활력과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함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

‘시노달리타스’는 공동 전략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길 위에 있는 순례자이자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우리의 겸손한 노력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자신과 눈앞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려는 유혹. 시노드 과정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관점에서 사안들을 살피고 선교 활동으로 변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각을 교회 전체 차원으로 확장 시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의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 교회에서 하느님의 꿈을 실행할 수 있는가?

3)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 과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끝

어안고만 있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낙담시키며 회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어둠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에만 집중하기보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온전히 활동하시도록 할 수 있는지 찾도록 해야 합니다.

4) 오직 구조에만 집중하려는 유혹. 시노드 과정은 더 깊은 친교와 더 충만한 참여와 더 풍요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의 쇄신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노달리타스’의 체험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식별하고자 함께 걷는 체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조의 변화와 쇄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의 지속적인 회개와 쇄신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교회의 가시적 한계 너머를 보지 않으려는 유혹.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서 남녀 평신도들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노드 과정은 재계와 학계, 정계와 문화계, 예술계와 체육계, 미디어계와 사회 정책 부분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생태와 평화, 생명에 관한 사안과 이주 상황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우리 사명의 완수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함께하는 교회 일치 여정의 깊이를 더 심화하고 다른 신앙 전통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심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6) **시노드 과정의 목표들에 대한 집중을 흐리게 하려는 유혹.** 세계주교시노드의 여정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는 폭넓은 논의를 펼치면서도 시노드 과정이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도록 부르시는지 식별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시노드 과정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시간을 들여 하느님의 결실을 함께 환영하고자 열린 마음을 지니는 공동 책임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와 접근입니다.

7) **갈등과 분열의 유혹.**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성부께 간절히 바치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서로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분열의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는 억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한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도는 헛된 일입니다.

8) **시노드를 의회의 일종으로 치부하려는 유혹.** 이 유혹은 ‘시노달리타스’를, 통치하고자 한 당파가 상대 당파를 이겨야만 하는 ‘정쟁’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거나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위협하는 분파적 충돌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9) **이미 교회 활동에 속한 이들에게만 정청하려는 유혹.** 이러한 접근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수월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상당수를 무시하게 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서울대교구 시노드 공식 홈페이지
www.synod.or.kr